

제7차 전국로병대회 성대히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대회에 참석하시어 뜻깊은 연설을 하시였다

제7차 전국로병대회가 7월 27일 수도 평양의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담앞에서 성대히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대회에 참석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대회장에 도착하시어 당과 정부, 무력기관의 중요직책에서 오랜 기간 일해온 전쟁로병들을 만나시고 그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시며 따뜻한 인사를 나누시였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전쟁로병들과 함께 대회주석단에 나오시였다.

순간 축포가 터져 오르고 대회장은 백전백승의 조선로동당, 존엄높은 우리 국가의 강대함의 상징이시고 모든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우러러 웨치는 우렁찬 《만세!》의 환호성으로 세차게 끓어번지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에 따듯이 답례하시며 대회참가자들과 전국의 전쟁로병들을 열렬히 축하하시였다.

대회에는 위대한 년대의 주인공들인 조국해방전쟁참전자들과 전시공로자들이 참가하였다.

또한 영웅적공화국무력 장병들과 세대 청년대학생들, 혁명학원 교직원, 학생들이 참가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인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인 조용원 당중앙위원회 비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인 김덕훈내각총리가 주석단에 나왔다.

당과 정부의 간부들인 리일환, 오일정, 정경택, 김영환과 도당책임비서들이 주석단에 자리잡았다.

박정천, 권영진, 리영길을 비롯한 무력기관 책임일군들이 함께 나왔다.

제7차 전국로병대회 개최가 선언되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장중하게 주악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열정에 넘친 뜻깊은 축하연설을 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전쟁로병들과 또다시 자리를 함께 하고 위대한 전승절을 경축하게 된 기쁨을 퍼력하시고 7.27을 맞은 온 나라의 조국해방전쟁참전자, 전시공로자들과 전체 인민들에게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보내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영웅적인 투쟁정신과 기쁨을 창조한 1950년대의 조국방위자, 조국건설자들이야말로 후세토록 길이 찬양하고 받아야 할 고마운 은인

들이며 참다운 스승들이라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전승세대 후손들의 영예로운 사명은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령도밑에 창조된 위대한 승리전통과 영웅정신을 빛나게 계승하여 선렬들이 지켜내고 일떠세운 이 나라를 더 강대하게 하고 끝없이 번영하게 하는것이라고 하시면서 전승세대가 피로써 쟁취한 혁명의 전취물은 굳건하며 우리 국가, 우리의 사회주의위업은 양양하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로병동지들이 건강

민에게는 무한한 힘이 되고 우리 혁명에 커다란 고무로 된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건강장수를 축원하시였다.

우리 조국의 위대한 승리의 력사를 창조한 전쟁로병들에 대한 고결한 혁명적의리와 한없이 숭고한 동지적사랑이 넘치는 총비서동지의 연설은 대회참가자들의 심장을 세차게 격동시켰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연설을 마치시자 또다시 우리와 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대회장을 진감하고 축포란들이 터져올랐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로병들과 함께 황홀한 불야경속에 빛나는 《승리》상을 바라보시면서 7.27이 안겨준 위대한 정신과 의지가 사회주의건설의 전진발전을 촉진하는 영원한 추동력이 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대회는 전쟁로병들의 삶을 영광의 절정에 높이는 총비서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고마움과 일편단심 당중앙을 충성으로 받들어갈 일념이 차넘치는 가운데 폐회되였다.

제7차 전국로병대회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위대한 년대의 영웅들이 지녔던 조국수호정신, 혁명보위정신과 자력갱생, 견인불발의 투쟁기풍으로 과감히 전진하여 사회주의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고자할 공화국인민의 드림없는 의지를 과시하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전승절에 즈음하여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를 찾으시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8돛에 즈음하여 7월 27일 0시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를 찾으시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앞에 꽃송이를 진정하시었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자들과 함께 렬사묘를 돌아보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열백번 바뀐다 해도 전승세대의 숭고한 혁명정신과 영웅적 위훈은 후대들의 애국열, 투쟁열을 끊임없이 분발승화시키며 혁명의 새 승리를 향한 우리 인민의 승리적 전진을 힘있게 추동하게 될 것이라고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필승의 피를 풀이머 나라의 자주권과 빛나는 계승의 역사를 창조한 위대한 표시하시었다. 말씀하시었다.

의 신념, 열렬한 애국심으로 심장 존엄을 영예롭게 수호하고 조선혁명의 년대의 영웅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참가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전승절에 즈음하여 우의탑을 찾으시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8돛에 즈음하여 7월 28일 우의탑을 찾으시었다.

화환진정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명의로 된 화환이 진정되였다.

화환의 댕기에는 《전체 조선인민의 이름으로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조선인민을 대표하여 김정은》이라는 글발이 씌여져있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제국주의 침략을 물리치는 우리 인민의 조국해방전쟁에 참전하여 귀중한 생명을 바친 중국인민지원군 렬사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었다.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의 분렬행진이 진행되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동행한 간부들과 함께 우의탑을 돌아보시었다.

총비서동지께서는 항미원조보가위국의 기치를 높이 들고 가렬처절한 전화의 나날들에 우리 군대와 어깨

결고 싸운 지원군장병들의 참다운 전투적우의와 무비의 희생정신은 위대한 전승의 력사와 우리 인민의 기억속에 력력히 새겨져있다고 말씀하시었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우리 공화국이 가장 혹독하고 힘든 고비를 겪을 때 우리 인민의 성스러운 력사적투쟁을

피로써 지원한 중국인민의 고귀한 넋과 공적은 번영하는 사회주의조선과 더불어 불멸할것이라고 하시면서 혈연적뉴대로 맺어진 조종친선은 공동의 위업을 위한 한길에서 대를 이어 굳건히 계승될것이라고 말씀하시었다.

본사기자



조선인민군 제1차 지휘관, 정치일군강습회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강습회를 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인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지도밑에 조선인민군 제1차 지휘관, 정치일군강습회가 7월 24일부터 27일까지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강습회에는 조선인민군 각 군종, 군단, 사단, 련대, 련대 군사지휘관, 정치위원들이 참가하였으며 조선로동당 조선인민군위원회 집행위원회 위원들과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의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주체적혁명무력의 강화발전에 또 하나의 뚜렷한 이정표를 아로새기게 될 조선인민군 제1차 지휘관, 정치일군강습회가 7월 24일에 시작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군정간부강습회를 지도하시기 위하여 강습회장소인 4.25문화회관에 도착하시자 조선인민군 지휘관들이 맞이하였다.

4.25문화회관에서는 공화국무력의 최고사령관을 정중히 영접하는 군영접의식이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개강사를 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온 나라 전체 인민이 혁명의 새 승리를 위한 견인불발의 투쟁을 벌리고있는 시기에 조선인민군 제1차 지휘관, 정치일군강습회가 뜻깊은 전승절을 앞두고 진행된다고 하시면서 당 제8차 대회이후 인민군대의 첫 회합으로 전군부대, 련합부대, 대련합부대 군정간부들의 대회합을 마련한 목적에 대하여 밝히시였다.

당중앙은 우리 혁명앞에 가로놓인 준엄한 난국을 타개하고 새로운 승리를 쟁취해나가는데서 인민군대 각 군종, 군단

들과 사단과 련단, 련대를 강화하는것이 가지는 의의를 특별히 중시하고있다고 하시면서 군력강화의 전조선에서 그리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대격전장들에서 헌신분투하고있는 각급 부대 군정간부들을 한시도 잊은적이 없다고, 뜻깊은 자리를 빌어 전군의 군인들에게 뜨거운 전투적인사를 보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강습회가 전군의 군정간부들을 우리 당의 혁명적무장력의 참된 지휘성원으로 준비시키는 간부혁명화의 중요한 시작점으로, 부대들의 작전전투능력과 정치군사적위력을 백방으로 다져나가는데서 획기적인 도약의 계기로 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조선인민군 제1차 지휘관, 정치일군강습회 개강을 선언하시였다.

강습회에서는 보고가 있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권영진 조선인민군 차수가 보고를 하였다.

강습회에서는 토론들이 진행되였다. 강습회 2일회의에서는 1일회의에 이어 토론들이 계속되였다.

강습회에서는 당의 군사정책을 충직하게 받들고 전투력강화와 군기확립, 군인생활개선에서 앞장서나가고있는 모범적인 부대들에 대한 평가가 있었다.

강습회에 참가한 군정간부들모두는 한결같이 고대하고 열망하던 가장 귀중한 것인 대회를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연락에 나오시자 온 장내는 위대한 령장의 귀중한 군건설리론과 대강을 받아안게 된 참가자들의 크나큰 감격과 흥분으로 하여 세차게 설레이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당이 제시한 군건설리론과 방침을 관철함에 있어서 현시기 인민군대앞에 나서는 중대한 혁명적인 투쟁과업들과 강습회에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강령적인 결론을 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결론에서 먼저 건군사상 처음으로 되는 전군적인 증견지휘관부들의 대강습을 조직한 취지에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제1차 지휘관, 정치일군강습회는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우리 혁명무력의 최정예화, 강군화목표와 과업을 정확하고 철저히 관철하는데서 각급 부대 지휘관, 정치일군들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하여 조직되였다고 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이번 강습회를 전승절을 택하여 조직한데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사상초유의 도전과 시련들이 첩첩히 가로놓여있고 한치한치를 강의 의지와 단호한 결단으로 헤쳐야 하는 지금 그 무엇보다 소중히 새겨안고 오늘의 현실로 재현해야 하는것이 위대한 전승의 전통이라고 하시였다.

혁명의 계승은 단순한 대물림이 아니라 투쟁정신의 계승, 힘차게 살아 높뛰는 불굴의 녀의 계승이며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절대로 회미해지거나 퇴색되게 함이 없이 더 강렬하고 즐기치게 계승해야 하는 것이 전승세대의 위대한 투쟁정신이라고 언명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결론에서 부대, 련합부대, 대련합부대들을 강화하기 위한 총적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인민군대앞에 당의 유일적령군체계를 철저히 세우기 위한 사업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적문제들과 과업들에 대하여 밝히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지휘관, 정치일군들이 적들의 그 어떤 군사적도발에도 능동적이며 공세적으로 대처할 준비를 완성하는데 총력을 집중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것은 당과 우리 혁명이 인민군대에 준 지상의 명령이며 그 누구도 대신할수 없고 지휘성원들이 목숨을 걸고 책임져야 할 초미의 과제라고 강조하시였다.

적대세력들이 광선적이고 집요한 각종 침략전쟁연습을 강화하며 우리 국가를 선제타격할수 있는 능력을 계속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준비를 증강하고있는 현 상황은 긴장격화의 악순환을 근원적으로 끝장내려는 우리 군대의 결심과 투지를 더욱 격발시키고있다고 하시였다.

모든 군정간부들이 당과 혁명에 대한 충실성과 사업능력, 사업결과를 평가받는 첫째가는 기준은 전직전투임무를 정확히 수행할수 있는 준비를 완성하는데 있다는것을 순간도 잊지 말고 부대들의 전투력강화에 최대의 박차를 가할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결론에서 각급 부대들이 훈련혁명 5대방침을 틀어쥐고 훈련열풍을 세차게 일으키는데 대한 과업과 인민군군인들에게 보다 개선된 군무생활조건을 보장해주는데서 나서는 방도적문제들을 상세히 밝혀주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결론에서 군정간부들의 자질과 수준, 책임성과 역할을 높일데 대하여 특별히 언급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결론을 마치시면서 모두다 향도의 우리 당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단결하여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의 안녕과 영원한 부강을 위하여, 위대한 우리 인민을 위하여, 인민군대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우리 혁명의 새로운 승리를 위하여 힘

차게 싸워나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강습회 3일회의에서는 전화의 근위부대 지휘관들이 보여준 숭고한 투쟁정신과 기쁨을 분받아 당에서 제시한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집행하며 부대들의 군사정치사업을 한계단 도약시키는데서 나서는 방도적인 문제들을 체득시키기 위한 강습이 진행되였다.

전군의 모든 부대들을 조선로동당의 령도에 절대충성하고 절대복종하는 불패의 전투대로 만들 군정간부들의 드높은 열의가 세차게 끓어번지는 가운데 조선인민군 제1차 지휘관, 정치일군강습회가 4일회의로 7월 27일 폐강되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1차 지휘관, 정치일군강습회 폐강사를 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모든 군정간부들이 당중앙의 구상과 의도, 자신들의 위치와 임무를 똑똑히 재인식하고 부대의 전투력강화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올 명확한 실천방도들을 찾은 이번 강습회는 우리 군대의 현대화사업에서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의미깊은 회합으로 되였다고 언명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모든 군정간부들이 당의 군건설중요사상과 이번 강습회에서 강조된 과업과 방도들을 가슴깊이 새기고 헌신분투함으로써 부대의 전투력강화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가져오리라는것을 확신하시면서 조선인민군 제1차 지휘관, 정치일군강습회 폐강을 선언하시였다.

주체의 군건설사에 특기할 조선인민군 제1차 지휘관, 정치일군강습회는 전군의 전투력을 비상히 강화한 의의있는 계기로 되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1차 지휘관, 정치일군강습회 참가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위대한 전승의 명절인 7월 27일 조선인민군 제1차 지휘관, 정치일군강습회 참가자들을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로 불러주시고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조국의 안전과 인민의 안녕을 지켜가는 북무의 나날 언제나 그러며 마음달리던 성스러운 당중앙위원회프락,

최고사령부프락에서 경애하는 총비서동지를 모시고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게 된 무한한 감격과 환희가 부대, 연합부대, 대연합부대장, 정치위원들의 가슴마다에 세차게 끓어번지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나오시자 군정간부들은 건군력사에 처음으로 되는 대강습을 조직해주시고 정력적으로 지도하여주시며 우리 혁명무력의 영광넘친 발전행로에 또 하나의 의의깊은 리정표를 세워주시고 전후력강화의 귀중한 지침을

안겨주시는데 이어 대해같은 믿음과 사랑을 거듭 베풀어주시는 위대한 령장, 자애로운 스승의 강렬한 정과 열을 온몸으로 받아안으며 우렁찬 《만세!》의 환호를 터쳐올리었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우리 당 혁명무장력의 핵심골간인 군정간부들이 이번 강습회에서 체득한 당중앙의 전략전술적구상과 방침, 부대강화의 묘술과 방법론을 군사정치활동에 능숙히 구현하여 혁명앞에 다진 맹세를 철저히 지키고 전군의 모든

부대를 조선로동당의 위업에 무한히 충직한 불멸의 전투대로로 튼튼히 다져나가기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그들과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기념촬영이 끝나자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간곡한 가르치심대로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믿음직한 충신명장, 충신정치위원으로 살며 투쟁하며 조선혁명의 최고참모부를 목숨으로 보위하려는 군정간부들의 역척의 각오와 의지가 담긴 당중앙결사옹위의 합성이 하늘땅을

진감하였다.

전체 군정간부들은 붉은 당기가 휘날리는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 최고사령부프락에서 위대한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성벽을 이루고 불멸의 화폭을 남긴 영광의 순간을 영원토록 심장에 간직하고 총비서동지의 령도를 일심전력으로 받들며 혁명의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역세게 싸워나갈 전승의 맹세를 다지고 또 다지었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제7차 전국로병대회 참가자들을 만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7월 29일 제7차 전국로병대회 참가자들을 만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성대히 진행된 전국로병대회에서 열화의 정과 믿음에 넘친 축하연설을 받아안는데 이

어 또다시 대를 두고 길이 전할 무상의 영광과 행복을 누리게 된 대회참가자들은 끝없는 감격과 환희에 넘쳐있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촬영장에 나오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전쟁로병들을 전설적인 영웅시대의 주인공들로 후손들앞에 긍지높이 내세워주시고 그들의 영웅정신을 조국청사에 금문자로

새겨주시는 원수님을 우리러 열광의 환호를 올리었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우리 공화국의 영광찬란한 발전행로에 빛나는 전승세대의 값높은 위훈은 우리 인민을 새로운 영웅적 투쟁으로 고무추동하고있다고 하시면서 고결한 후대관, 혁명관을 지닌 혁명선배들은 우리 당과 인민의 커다란 자랑이며

위대한 귀감이라고 말씀하시었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전화의 영웅들이 소중히 그려본 부총강국을 꾸려나가기 위하여, 우리 인민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인민으로 내세우기 위하여 끝까지 분투해나갈 드림없는 의지를 확약하시면서 전쟁로병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기념촬영이 끝나자 또다시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랐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헤여지기 아쉬워 걸음걸음 따라서는 로병들의 손을 따듯이 잡아주시고 부디 건강장수하기를 바라는 진정을 담아 오래도록 뜨거운 인사를 보내시었다.

본사기자

빛나게 계승되는 전승세대의 위대한 영웅정신



공화국에서 전승절을 뜻깊게 기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또다시 성대한 전국로병대회를 마련해주시고 몸소 대회에 참석하시어 뜻깊은 연설도 하시었다.

돌이켜보면 자신께서는 전쟁로병들이 더 늙기 전에 그들을 만나 기념사진도 함께 찍고 국가연회도 차려주려고 한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해마다 전쟁로병대표들을 평양에 초청하여 전승절을 승리자의 뜻깊은 명절로 성대하게 경축하는것을 전승화하여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그이이다.

전승절경축행사에 참가하는 전쟁로병들에게 전쟁시기에 입었던것과 같은 군복을 만들어주어 그들이 군복을 입고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주실수 있는 온갖 사랑과 배려를 다 돌려주시는 경애하는 그의 뜨거우신 정과 송년 도덕의리에 떠받들려 전승세대는 《승고한 정신과 넉을 후대들에게 심어준 위대한 스승》, 《후대들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

친 훌륭한 혁명가, 애국자들》,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는 우리 혁명의 보배들》이라는 값높은 칭호와 영예속에 복된 삶을 누리고있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이번 제7차 전국로병대회에서 전승세대가 이룩한 공적을 또다시 값높이 내세워주시면서 로병동지들이 건강한 몸으로 살아만 계셔도 우리 당과 인민에게는 무한한 힘이 되고 우리 혁명에 커다란 고무로 된다고 하시었다.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전쟁참가자들도 많지만 공화국의 전승세대처럼 절세위인의 대해같은 사랑과 은성속에 인생의 최절정에 올라 복 받은 삶을 누려가는 세대는 없을것이다.

하기에 지금 온 나라 전쟁로병들과 인민들은 경애하는 그이께 다함없는 감사와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드리며 그의 령도따라 위대한 승리를 안아올 불같은 열의에 넘쳐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번 로병대회에서 하신 연설에서 우리 조국청사에 금

문자로 새겨진 전승세대의 공적중에서 제일 귀중하고 값진것은 영웅적인 투쟁정신과 기풍을 창조한것이라는 가슴뜨거운 말씀을 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전승세대가 발휘한 영웅적인 투쟁정신은 오직 자기 당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당결정을 묵살바쳐 받든 결연한 혁명정신, 자기 힘과 승리를 확신하고 조국앞에 닦친 생산존망의 위기를 맞받아 한몸을 서슴없이 내던 결사의 희생정신이며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며 복귀와 건설에 힘차게 나아간 불굴의 투쟁정신이고 어려움속에서도 서로 의지하고 위해지며 사회주의 새 생활을 꾸려나가는 집단주의정신이 라는데 대하여서도 밝혀주시었다.

간고하였던 조국해방전쟁에서 공화국이 세상을 놀래우며 승리의 명령을 묵살바쳐 관철할수 있었던것이다. 맨손으로 기계를 돌리고 포탄과 폭탄이 비발치는 속에서도 전지생산을 중단하지 않은 군사공업부문 로동계급과 전지농업근로자들을 비롯

한 후방인민들이 발휘한 불굴의 투쟁정신은 조선이 보병총과 원자탄의 대결이라고 한 조국해방전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수 있게 한 주동력의 하나로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해방전쟁에서 승리한 전체 인민들에게 보내신 방승연설에서 군대와 인민의 정치도덕적상태, 전선과 후방인민들의 전투적정신이 전승승리의 가장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된다고 긍지높이 천명하시었다.

전승세대의 불굴의 정신은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며 복귀와 건설을 다그쳐야 했던 전후복구건설시기에도 높이 발휘되었다.

전승세대는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웠던 그때 단순히 복구만 할것이 아니라 더 크고 더 훌륭하게 일떠세워 복구건설에서도 조선사람의 본매를 보여주자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호소를 받들고 빈터위에 자주강국건설의 첫발을 박았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면서 남들이 한걸음 걸을 때 열걸음, 백걸음을 내달리는 그들의 불굴의 투쟁정신과

기풍에 의해 공화국에서는 전후복구건설이 성과적으로 끝나고 전설속의 천리마가 나는 기적이 창조될수 있었다.

6만인의 공칭능력을 가진 압연기에서 12만인의 강재가 생산되고 19만대 어렵다던 용광로에서 27만대의 선철이 쏟아졌으며 30여일만에 첫 《천리마》호프락도르가 태어나고 《승리》호자동차와 굴착기, 불도젤들이 려이어 대지를 내달리었다. 녀성들도 조직된 고기배가 바다로 나가고 건설부문에서 7천세대분의 자재를 가지고 단 한해 사이에 2만여세대의 살림집을 건설하는 기적이 창조된 것도 바로 이 시기였다. 어디가나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라는 구호가 실생활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어려움속에서도 서로 의지하고 위해지며 사회주의 새 생활을 꾸린 고상한 집단주의정신이 차고넘치었다.

참으로 강대하고 아름다운 공화국의 귀중한 모든것들이 바로 전쟁로병들이 대표하는 위대한 세대의 공적과 하나

로 잇닿아있는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번 제7차 전국로병대회에서 하신 뜻깊은 연설에서 1950년대의 조국방위자, 조국건설자들이 발휘한 투쟁정신을 불멸의 영웅정신이라고 불러주시고 그들에게 후세도록 길이 찬양하고 본받아 할 고마운 은인들이며 참다운 스승들이라는 값높은 칭호를 또다시 안겨주시었다.

위대한 승리와 기적을 남긴 투쟁정신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빛을 잃지 않으며 새로운 승리와 기적을 탄생시키는 전함없는 원천으로 되고있다. 공화국인민이 몇차례의 전쟁과 맞먹는 사회주의수호전의 간고한 시련을 극복하고 혁명앞에 나선 거창한 대업들을 승리적으로 이룩해올수 있었던것도 바로 전승세대의 위대한 영웅정신을 이어받았기 때문이다.

사람의 가치가 사상에 의하여 평가되듯이 나라와 인민의 운명개척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것도 바로 자주적

인 사상의식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공화국에는 전승세대가 발휘하였던 위대한 영웅정신이라는 고귀한 사상정신적재부가 있다.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민족도 많지만 위대한 영웅정신을 가지고있고 그것을 대를 이어 계승해가는 나라는 오직 공화국뿐이다.

공화국이 걸어온 전 력사적로정은 영웅정신으로 언제나 기적과 승리의 서사시대를 누송아온 자랑스러운 력사로 길이 빛을 뿌리고있다.

이런 영웅정신이 있고 이 정신을 빛나게 계승해가는 후손들이 있기에 공화국은 시간이 갈수록 더 강대해지고 끝없이 번영하는것이다.

공화국인민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령도밑에 창조된 위대한 승리전승과 영웅정신을 빛나게 계승하여 이 나라를 더 강대하고 끝없이 번영하는 나라로 빛나게 할것이다.

본사기자 박철남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한 역사적로정

조국통일에 유리한 국제적환경을 마련하여

1970년대에 공화국은 적극적인 대외활동을 통하여 내외분열주의 세력의 '두개 조선' 조작을 무효로 저지... 1973년 9월 20일 유엔총회 제28차회의가 열리게 되었다.

국제적환경이 공화국에 유리하게 조성되는 가운데 1973년 9월 20일 유엔총회 제28차회의가 열리게 되었다. 유엔총회 제28차회의의 의정으로 포함시켜 도의할것을 하였다. 10월 1일 유엔총회 제1위원회는 조선문제를 토의할 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를 무조건 초청할것을 결정하였다.

43개국 공동결의안이 철대다수 유엔성원국들의 찬성으로 채택된 것은 공화국의 시종일관한 자주적평화통일방침의 정당성과 그 위대한 생활력의 뚜렷한 시위였다. 또한 이는 지난 기간 해마다 거수기를 발동하여 제멋대로 조선문제에 대한 부당한 '결의'를 조작해내던 외세의 지배자의적천칭에 종지부를 찍은 역사적사변이었다.

남북련석회의의 휴회일이었던 주제37(1948)년 4월 20일이었다. 남북련석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온 남조선의 각계층 대표들을 일일이 만나주시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계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날 남조선그리스도교민주동맹 대표 김창준위원장과 그 일행을 친히 몸가 가까이 불러주시었다.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대표자련석회의소집을 앞두고 그에게도 특별초청장이 왕망았던 것이다. 특별초청장에는 정당이나 신앙, 정치적리념의 차이에 관계없이 나라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굳게 단결하여 투쟁할것을 바라는 위대한 수령님의 민족대단결결론이 담겨져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교인들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먼저 생각하여야 하며 서로 장벽을 쌓고 교교싸움을 할 것이 아니라 미제의 '단선단정' 조작책동을 분쇄하고 민주주의적통일정부를 수립하기 위하여 굳게 뭉쳐야 한다고, 더우기 미제와 남조선반동파들이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고있는 조건에서 교인들은 단합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더 잘하여야 할것이라고 이리시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리극로선생이 지도한 조선애국화와 민족운동도 조국광복회10대강령을 전폭적으로 지지... 후날 리극로선생은 자서전에서 이렇게 썼다. 「...일체의 민족통화정책, 민족어말살정책을 반대하여 싸울수 있었던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영도를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다.

통일을 불러 민족어연구와 더불어 빛나는 삶 (2) 손으로 받쳐들고 굳어진듯 서있었다. 후에 안 사실이지만 아버지수령님께서 리극로선생이 일제식민지통치시기 민족적관심과 애국적지조를 굽히지 않고 국내외에서 민족어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므로 의병대에도 편여하였던 민주인사라고 하시며 그를 남부조선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련석회의의 대표로 선출하도록 하시였던것이다.

공화국의 최고인민회의에서 대의원증을 들어 찬성표시하는 리극로선생 (앞줄의 왼쪽에서 첫번째) 여 자제의 힘으로 우리 나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있는것은 민족자주력량의 표현이라고 긍지높이 말하였다. 이것은 그의 솔직한 심정의 토로였다. 남북련석회의에 참가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는 남조선에서 나라가 분열됨으로써 처한 현실앞에서 격정을 하는 사람들은 많이 보았지만 민족을 위기에서 구원할 합리적인 방향과 방도를 내놓고 대중적 호응을 갈기하는 정치인은 보지 못하였던것이다.

기념 준중대회, 열병식을 보게 되었다. 난생처음으로 그런 행사들을 목격한 선생의 감격은 대단히 컸다. 더우기 선생은 5.1절기념행사장 주석단에서 시위준중이 비를 맞는데 나라고 우산을 쓰겠는가고 하시며 만류하지는 아버지수령님의 교배한 인민적품도를 눈앞에서 현실로 목격하며 뜨거운 격정에 휩싸였다. 민족의 위대한 태양에게 끌리는 선생의 끝없는 흥모의 마음은 인민적정치가 찬란히 펼쳐지는 북반부현실을 돌아보면서 더욱 두터워졌다. 「나는 참으로 위대한 현실을 보았다. 이 위대한 현실은 우리 민족이 완전자주독립할수 있으며 그 길은 오직 김일성장군님께서 이끄시는 북조선이 걷는 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다.」 눈앞에 펼쳐지는 공화국의 놀라운 현실을 직접 목격한 리극로선생은 아버지수령님을 만나뵈는 자리에서 품고있던 가슴속 소망을 담아 이렇게 말씀올렸다. 「장군님! 선생의 기상이 넘치는 북에 와보니 더이상 애도도 복고싶은데가 없습니다. 장군님께서 허락만 해주신다면 내 여기 그대로 눌러앉아 민주건국에 몸을 바칠가 합니다.」 아버지수령님께서 진정어린 그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잘생각했다고, 선생이 북반부에 남는다면 할 일이 많다고, 함께 손잡고 민족문화도 건설하고 우수한 우리 나라 인어도 발전시키라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그리하면서 새 조선의 민족문화를 건설하는 사업은 응당 선생과 같은분들이 맡아야 한다는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장군님! ...」 이렇게 되어 리극로선생은 따뜻한 삶의 품, 공화국의 품에 인생의 뜻을 내리게 되었다. 본사기자 황금숙



공화국의 최고인민회의에서 대의원증을 들어 찬성표시하는 리극로선생 (앞줄의 왼쪽에서 첫번째)

남조선에서 민족자주자들은 미국을 《한국독립의 은인》, 《혁명》, 《맹방》 등 듣기에도 역스러운 것 같아 미사리구들로 주머니를 찌르면서 인민들속에 숨미공미정신을 퍼뜨리는데 광분하였으므로 1953년부터 1980년까지만 해도 《류학》이라는 명목아래 무려 1만 5 000여명을 미국에 보내 미국물을 들여 남조선 《정부》의 각 조직에 배치하였었다. 광주대학살을 감행하고 발족한 전두환 《정권》의 경우에도 《장관》, 《차관》, 《차관보》의 30%가 미국에서 교육을 받았다고 한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숨미, 공미의 침이 새들고 길들여진 친미군사료 쏘분자들은 외세의 충실한 하수인이 되어 동족을 없애버려야 할 《주적》으로 작대기하면서 군사적도 절대대결책동에 매달려왔다. 숨미와 공미, 종미에 빠져 겨레의 손가락질을 받았던 남조선의 리명박, 박근혜 《정권》도 반민족적, 반통일적책동들을 공개적으로 자행하면서 반북대결소동으로 북남관계를 최악의 위기에 몰아넣었으며 남조선인민들의 의로운 투쟁은 물론 저들의 눈에 거슬리는 모든 것을 《종북》으로 매도하면서 파괴의 칼부림을 일삼았다. 남조선사회에 만연되어온 숨미, 공미의 의식야말로 사람들의 건전한 의식을 마비시키고 정신적봉기로 몰아넣은 친미분자로 키웠다. 《북진통일》, 《승공평등》을 《국책》으로 삼고 북침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단 리승만과 그의 수하 쫓개들도 바로 미국선교사들에 의해 선별되고 미국의 돈으로 류학하여 벼속까지 숨미, 공미의식으로 물든 친미분자들이었다. 리승만, 박정희를 비롯하여 역대 남조선의 독재본사기자 김영진

남조선에서 민족자주자들은 미국을 《한국독립의 은인》, 《혁명》, 《맹방》 등 듣기에도 역스러운 것 같아 미사리구들로 주머니를 찌르면서 인민들속에 숨미공미정신을 퍼뜨리는데 광분하였으므로 1953년부터 1980년까지만 해도 《류학》이라는 명목아래 무려 1만 5 000여명을 미국에 보내 미국물을 들여 남조선 《정부》의 각 조직에 배치하였었다. 광주대학살을 감행하고 발족한 전두환 《정권》의 경우에도 《장관》, 《차관》, 《차관보》의 30%가 미국에서 교육을 받았다고 한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숨미, 공미의 침이 새들고 길들여진 친미군사료 쏘분자들은 외세의 충실한 하수인이 되어 동족을 없애버려야 할 《주적》으로 작대기하면서 군사적도 절대대결책동에 매달려왔다. 숨미와 공미, 종미에 빠져 겨레의 손가락질을 받았던 남조선의 리명박, 박근혜 《정권》도 반민족적, 반통일적책동들을 공개적으로 자행하면서 반북대결소동으로 북남관계를 최악의 위기에 몰아넣었으며 남조선인민들의 의로운 투쟁은 물론 저들의 눈에 거슬리는 모든 것을 《종북》으로 매도하면서 파괴의 칼부림을 일삼았다. 남조선사회에 만연되어온 숨미, 공미의 의식야말로 사람들의 건전한 의식을 마비시키고 정신적봉기로 몰아넣은 친미분자로 키웠다. 《북진통일》, 《승공평등》을 《국책》으로 삼고 북침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단 리승만과 그의 수하 쫓개들도 바로 미국선교사들에 의해 선별되고 미국의 돈으로 류학하여 벼속까지 숨미, 공미의식으로 물든 친미분자들이었다. 리승만, 박정희를 비롯하여 역대 남조선의 독재본사기자 김영진

세상이여, 우리를 부러워하라

주체의 사회주의건설의 세 승리를 향한 력사적진군길에서 남녀평등권법령발포 75돐을 맞이하는 온 나라에 우리 녀성들의 행복넘친 웃음과 긍지넘친 목소리가 량랑히 울리고있다.

《세상이여, 우리를 부러워하라》

이것이 위대한 김정은시대에 온갖 복을 다 누리며 사는 공화국녀성들의 한결같은 웨침이다. 지난 75년간 절세위인들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속에 참된 삶을 누려온 공화국녀성들의 영광스러운 력정이 말해주는 불변의 진리이다.

남자들과 동등한 권리와 자유를 가지는것은 오랜 세월 천대와 멸시속에 살아온 조선녀성들의 세기적수확이었다.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선 첫 시기부터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녀성들의 세기적수확을 헤아리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항일혁명

투쟁의 불길속에서 주체의 녀성운동의 시련을 열어놓고 시고 영광스러운 전통을 마련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해방 후 다른 근로단체들에 앞서 녀성동맹을 먼저 창립하도록 하시니 새 나라의 주인된 기쁨을 안겨주시기 위하여 이처럼 분방하신 속에서 손수 남녀평등권법령초안을 한조항한조항 작성하시였으며 주체35(1946)년 7월 30일 남녀평등권법령은 새 세상에 선포하시였다.

녀성들의 사회해방과 남 녀평등의 실현!

정녕 그것은 오랜 기간 봉건적질곡속에서 온갖 착취와 억압, 멸시와 구속을 받

왔고 나라없던 수난의 시기에는 삶의 권리마저 빼앗기고 강점자들에게 가장 비참한 운명을 강요당하였던 조선녀성들의 운명개척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온 력사적인 사변이었다.

지금도 조용히 귀기울이면 법령발포소식에 접하여 온 나라 녀성들이 감격에 울고있으며 목청껏 웨치던 《김일성장군 만세!》의 환호성이 들려오는것만 같다. 인민의 마음속에 영원한 메아리로 울려퍼지는 그날의 만세소리는 녀성들을 나라의 당당한 주인으로 내세워주신 위대한 은인을 우러러 터치는 한없는 고마움과 경묘심의 분출이었다. 녀성들을 혁명의 한쪽수레바

퀴를 떠밀고나가는 사회와 국가의 당당한 주인으로 내세워 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에 의하여 조선녀성들의 지위에서는 세기적인 전변이 일어나게 되었으며 수많은 녀성들이 새 조국건설이 힘있게 벌어지는 공장노동자의 미더운 주인들로, 조국을 지켜 용감히 싸운 영웅들로 몰라보게 성장하였다. 가를철했던 전하의 나날에만도 공화국의 녀성들은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쳤으며 그 나날에 10여명의 영광과 근 2만명의 국가수훈자들이 배출되었다.

적후천리에서 최고사령부를 마음속에 그려며 사신을 헤치고 최후의 순간에 당원

중과 당비를 당중앙위원회에 전하여줄것을 부탁한 안영애영웅과 《김일성장군 만세!》를 소리높이 웨치면서 한몸이 그대로 육단이 되어 적땅으로 가부신 21살의 평범한 간호원이었던 조순영영웅의 넋은 오늘날도 인민들의 마음속에 살아 빛난다.

전후복구건설의 나날들과 천리마시대의 거창한 진군속에서 공화국녀성들이 부강조국건설의 길에 뚜렷한 공적을 세기도록 이끌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심혈과 로고는 끝이 없다.

위대한 수령님의 은혜로운 손길아래 공화국의 녀성들은 나라의 중요초소를 담당한 일군으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서, 인민과학자, 인민

체육인으로 자라날수 있었고 존엄한 년대들마다에 조선녀성의 존엄과 기개를 용용히 떨치며 시대의 선구자로 자랑찬 위훈을 수놓을수 있었다.

공화국의 녀성들을 혁명과 건설을 떠밀고나가는 힘있는 력량으로 내세워주시며 이 땅에 녀성중시의 빛나는 력사가 이어지게 하신분은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이시였다.

혁명령도의 전기간 《녀성들은 혁명과 건설을 떠밀고나가는 힘있는 력량이다》, 《강성대국건설대전에서 주체의 조선녀성운동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더욱 빛내어라!》를 비롯한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어 조선녀성운동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 주신 위대한 장군님.

장군님의 사랑과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 나라 녀성들은 세월이 흘러가도 잊지 못하고있다.

오늘 공화국녀성들의 존엄과 영예, 긍지는 또 한분의 절세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어 영광과 행복의 최정점에서 빛내고있다.

조선사회주의 녀성동맹 제7차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조선로동당을 따라 시련의 언덕을 용감히 넘으며 나라의 부강발전과 후대들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사회와 가정의 단합과 화목을 위하여 성심을 다해 준 전체 조선녀성들에게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우리 녀성들에게 더 좋은 미래와 아무런 근심걱정없는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는것은 당중앙의 확고한 의지라고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뜻깊은 서한의 구절구절들을 새겨볼수록 몸소 어머니날도 제정해주시고 건설주, 시공주가 되시어 녀성로동자들의 학습을 지어주시고 그들의 밝은 미래를 축복하시어 연희까지 차려주시였으며 사회주의미풍을 발휘한 녀성들을 영광의 단상에 내 세워주시는 자애로운 아버지의 불멸의 로고가 뜨겁게 어려와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이 나라 녀성들이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언젠가 평양화초염원구조를 찾으시어 어머니날에 꽃밭에서 꽃을 사가지고 가서 어머니들에게 드리면 그들이 좋아할것이라고 다스리히 가르쳐 주시고 동해의 어느 한 포구를 찾으시어는 물고기를 선별하는 녀성들을 격려하시며 몸소 허리굽혀 인사

도 해주시였다. 나라의 중대사를 토의결정하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전원회의에서 인민생활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하려는 충심으로 친히 서명하신 특별명령서를 발령하시고 국가의 부담으로 전국의 탁아소, 유치원어린이들에게 첫째품을 비롯한 영양식품들을 공급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신 경애하는 그이의 숭엄한 모습은 또 얼마나 이 나라 녀성들을 세한 격정에 휩싸이게 하였던가.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무엇도 서슴지 않는것이 모성이지만 어제는 온 나라 아이들에게 《민들레》 학습장과 《해바라기》 학습품을 얻어주시고 오늘은 유치원과 탁아소어린이들에게까지 첫째품을 비롯한 영양식품을 마련해주시니 참으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넓고 따뜻한 품은 공화국녀성들의 속근심까지도 헤아리고 말끔히 풀어주시는 위대한 아버지의 품이다.

하기에 아일랜드의 한 녀성인사는 《조선녀성들은 이 남자들과 똑같이 로동의 권리를 향유하고있을뿐 아니라 사회적인간으로서의 발전권도 충분히 보장받았다. 녀성들이 아무런 근심걱정없이 사회생활을 할수 있도록 국가가 모든것을 보장해주는 조선의 사회주의제도는 서방의 녀성들에게 있어서 환상의 세계가 아닐수 없다.》고 감동을 금치 못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친아버지로 높이 모시기에 조선의 녀성들은 앞으로 《세상이여, 우리를 부러워하라》고 소리높이 자랑하며 나라의 꽃, 생활의 꽃, 행복의 꽃으로 활짝 피어날것이며 인민의 나라, 부강한 나라에서 같이 행복하게 살것이다. 끝없이 무궁번영할 공화국의 밝은 미래와 더불어. 조선사회주의녀성동맹 중앙위원회 위원 정경희



2019년 촬영



2015년 촬영



2015년 촬영



2019년 촬영

사회주의제도의 혜택속에 값높은 삶을 누려가는 공화국의 녀성들

함께 울고웃으며 사는 화목한 대가정

영예군인녀성이 부른 행복의 노래

평범한 영예군인녀성이 영영 잃었다고 생각했던 본래의 모습을 되찾고 행복한 새가정을 이룬 이야기는 남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여기고 남의 기쁨을 자기의 기쁨으로 여기는 고상한 미덕이 평범한 생활로 되있는 공화국에서만 있을수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이다.

지금으로부터 7년전 어느 날 고향인 신천군을 떠나 평양의 중앙병원을 찾아가는 박수련의 가슴은 이뻐할수 없는 격정으로 설레었다.

문득 하루전에 한 일군이 찾아와 군에서 동무를 평양의 중앙병원에 보내기로 결정하였다고, 동무의 모습을 되찾아주기 위해 군의 일군들이 마음을 많이 쓰였다고 하던 말이 돌이켜졌다. 그 이야기를 듣는 박수련과 그의 어머니의 감동은 컸었다.

그의 눈가에는 차안에 가득 실려있는 생활필수품이며 영양식품이 비껴들었다. 군안의 일군들과 고향사람들이 중앙병원으로 떠나는 그를 위해 마련한것들이었다. 그야 영예군인의 품이 되어 고향에 돌아오는 얼마되지 않았다. 그 나날은 그에게 고마운 사회주의제도의 한식술로 사는 궁지를 다시금 뿌듯이 새겨준 나날이었다.

협하게 이그러진 얼굴때문에 바깥출입을 거니하지 못하는 그에게 힘을 주기 위해 마을사람들과 학장시절동무들이 부지런히 집문턱을 넘나들었다. 우편물신분은 그의 집에 제일 먼저 배달을 가져다주곤 하였고 이름도 주소도 모를 사람들이 이 보약제를 안고, 색다른 음식을 안고 그의 집을 찾곤 하였다.

남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남을 위해 자기를 바치는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오늘날은 자기를 중앙병원

으로 떠밀어 보내는것이였다. 그날 그가 동행한 일군과 함께 처음으로 찾아가는 곳은 보건성 치과종합병원이었다. 자기를 반갑게 맞아주며 자기의 얼굴이며 몸상태를 일일이 진찰해본 의료일군들이 《수술을 합시다!》라고 확신언어 어조로 말할 때 무 기뻐 자리를 차고 일어나던 동행한 일군의 모습을 그는 오늘도 잊지 못하고있다. 며칠후 그는 얼굴성형수술을 받았다. 의료일군들은 그를 위해 쓰거운 정성을 기울였다. 수술은 몇차례나 진행되었다.

사진속의 모습과 수술후의 모습을 대비해보면서 너무 기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안락가움에 모태기다고 하는 의료일군들의 모습은 천혈옥의 모습 그대로였다.

극심한 아픔에 잠 못 있을 때면 머리맡에 앉아 밤새워 이야기꽃을 피우던 담담간호원처럼 치료를 받자면 건강이 안받침되어야 한다며 성의껏 마련한 영양식품을 한술두술 입안에 떠넣어 주던 의사들의 진정속에 그의 상태는 눈에 띄게 달라져갔다.

얼마후 그는 온탕치료를 받기 위해 료양소로 떠났고 몇달후에는 또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다.

어디서나 그를 반갑게 맞

아주었고 평범한 영예군인녀의 회복을 위해 정성을 다 바쳤다. 하기에 그는 7년만에 잃었던 자기의 모습을 되찾게 되었다.

티 한점 없이 맑은 거울에 비친것 자기의 모습을 보며 그는 울고웃었다. 거울속으로 군의 일군들이며 고향사람들, 의료일군들과 이름도 모를 고마운 사람들의 도움으로 살아났기 때문이다. 박수련은 마음속으로 웨쳤다.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그무렵 박수련이 제대되어 고향에 돌아왔을 때 자진하여 그를 자기 단위의 종업원으로 받아들인 신천군량정사업소 류룡철지배인의 생각은 깊어졌다.

이제는 재발도 걸을수 있고 얼굴도 고와진 수련이가 왜 다른 처녀들처럼 한가정의 안해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싶은 마음이 없으랴.

그러던 어느날 류룡철지배인은 수련이와 일생을 같이 하겠다고 이미전부터 그의 부모를 찾아다니는 한 청년 대학생이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류룡철지배인은 그달음으로 박수련의 집을 찾아갔다. 마침 그 청년도 집에 있었는데 이름구미가 그즈한제 첫눈에 마음이 끌렸다.

청년이 집문턱을 넘어설 때마다 단념하라고, 제 말 자식때문에 남의 집 귀한 아들을 회색시킬수는 없다고 완강히 거절하던 박수련의 어머니는 치미는 걱정을 애써 누르며 이렇게 외쳤다.

《어쩌면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하나같이 비단결 같을수 있겠습니까.》

영예군인녀성의 결혼식은 온 신천군의 관심속에 진행되었다. 군의 일군들은 새가정을 꾸리는데 필요한 생활용품이며 살림살이도구들을 일식으로 갖추어주었고 류룡철지배인은 종업원과 힘을 합쳐 신친음에 반듯한 집을 마련해주었다.

영예군인녀성도 우리 친딸이고 고마운 총각도 우리 친아들이라며 뜨거운 진정을 바친 수많은 사람들의 축복속에 일약한 박수련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다. 뜻깊은 결혼식날 이틀부부는 노래 《세상에 부러웠어라》를 소리높이 불렀다.

...
사람들 화목하게 사는 내 조국 한없이 좋네
우리의 아버진
김일성원수님
우리의 집은 당의 품
우리는 모두다 친형제
세상에 부러웠어라
...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서로 돕고 이끄며 어려움수록 더 따뜻이 의지하고 고풍을 함께 해나가는 사회주의생활, 하기에 이 나라 인민은 남이 없는 내 나라, 그 품 떠나 순간도 못산다고 진정을 터치는것이리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사회주의대가정의 어머니로 높이 모시기에 사람들의 생활은 그토록 아름답고 그 품에서 누구나 친형제, 한식술로 사는것이다.
본사기자 흥복식

산업미술도안창작에 열정을 바쳐간다

조선산업미술창작사에서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새롭고 특색있는 명도안들을 내놓기 위한 창작열풍이 맹렬하게 일어났고있다.

올해에 들어와 많이 창작된 산업미술도안들중에는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에 설치할 표식비, 표식주, 방향안내판도안들도 있다.

새롭게 변모된 함경남도인민병원의 종합안내도안도 창작절, 봉사자를 잘 보좌하

였다. 무케도전차형태도안과 가공부식물이동밀차도안, 류경김치공장에서 생산되는 여러가지 제품의 포장상표도안에 특색있게 형상되었다.

학용품도안들도 이제품계 만들어 내놓았다. 직업적특성을 살리면서도 활동에 편리하고 계절적조건에 맞는 근무복도안 창작에서도 성과가 이룩되었다. 창작사에서는 명도안들을

더 많이, 더 빨리 창작해 낼 열정을 안고 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본사기자



북녘의 교육현장을 가다

그렇것이 대의원후보자인 총장과 담화를 나누시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주요전구사다에서 김책공업종합대학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다고, 대학이 과학교육사업과 경제의 활성화, 인민생활향상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는 데서 우리 당이 제일 믿고있는 말아들, 나라의 과학교육과 경제건설을 견인하는 기관차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도록 앞으로 일을 더 잘하기 바란다고 뜨겁게 고무격려해주셨다고 신문과 방송은 전했다.

그뿐아니라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대학이 차지하는 위치와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하시면서 대학이 나아가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였으며 대학의 교육사업과 과학설비, 정보기술의 현대화를 위해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나라의 과학기술발전과 경제건설을 힘있게 견인하는 선두마차, 기관차. 그의 이 말씀을 통하여 세계는 과학기술과 교육발전을 토대로 하여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시려는 그들의 의지를 잘 알게 되었을것이다.

이 대학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얼마나 크나큰 믿음과 사랑속에 있는가

선두마차, 기관차가 되라 (2)

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공화국에서 식료공장의 본보기, 표준으로 전변되었다는 어느 한 공장을 돌아볼 때의 일이다.

어느해인가 이 공장을 찾아주신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통합생산관리체계가 규모에 있어서나 지능화, 정보화수준에 있어서 우리 나라에서 남의 것보다 높고 통째로 옮겨놓는데 불과한 공장들은 물론 본적도 들은적도 없었던 기계설비들이 이 대학의 졸업생들에 의하여 다량적으로, 련발적으로 창조되고있다고 한다.

그는 제자들이 안아오는 성과의 비결에 대하여 이렇게 밝혔다. 《레로부터 금이야 옥이야 하는 말은 어린 자식들이 듣는 말이다. 하지만 이 땅에서는 그런 말을 우리 교육자들이 듣는다. 우리처럼 령도자의 천만고고와 눈물겨운 헌신으로 엮어진 《금방석》에서 모든 사람을 독차지하고 사는 과학자들은 행성의 어느 하늘아래도 없다고 본다. 우리 대학 졸업생들이 거두는 성과의 비결은 이때문이다.》

순간 나의 눈앞에 주마등처럼 펼쳐지는것이 있었다. 과학자, 교원들을 위해서

는 아까울것이 없다고 하시

며 하늘길에서도 보시고 아스라한 만장까지 오르시어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마련해주셨다는 황홀한 과학자, 교육자살림집들.

나, 그것을 인제중시의 기념탑들이라고 말하고있다. 어디 그뿐인가. 얼마전에는 김책공업종합대학의 한 로교수가 위급하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즉중기까지 띄워주시고 그의 소생을 위해 온갖 은정어린 조치를 다 취해주신 경애하는 그이이다. 그 소식으로 교육자들만이 아닌 온 나라가 감격에 눈물을 적시기도 하였다.

진정 고마우신 아버지의 사랑을 자양분으로 하여 자란 공화국의 과학자들이란 건주보석보다 더 아름다운 순결한 광명과 의리를 자기의 령도자에게, 조국에 아낌없이 바치는것이리라.

선두마차, 기관차가 되라! 선진장에서 나오시며 대학안의 교직원들과 학생들의 환호를 받으시는 경애하는 그이를 우러러보는 나는 다시 한번 이 말을 되새겼다. 나는 믿는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믿음과 사랑이면 하늘의 별도 따를 자들이 점점 못할 첨단이란 없을것이라는것을. 재중동포 김영란

시론 세계를 이어오는 야합

7월 29일은 미국과 일본사이 《타프트-가쓰라협정》이 이루어진 때로부터 116년 되는 날이다. 1905년 7월 29일 일본 도쿄에서는 미국 군장관 타프트와 일본수상 가쓰라 다로사이 에 비밀회담이 열렸고 거기에서는 일제가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식민지통치를 인정하며 그 대가로 미국은 일제의 조선침략을 적극 협력하고 조선에 대한 《보호통치》를 인정한다는 내용의 비밀협정이 맺어졌다. 조선이라는 주권국가와 민족의 운명이 침략국이 라는 두 제국주의국가가 조작한 문서상에서 통략되는 순간이었다. 이후 일제는 조선침략책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였고 우리 민족에 대한 40여년간의 악독한 식민지통치를 실시하였다. 8.15후 패망한 일제를 대신하여 남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한 미국은 70여년간이나 조선반도와 조선민족의 운명을 통략하고 있다. 미일사이의 침략적인 야합은 세계를 이어오고 있다. 미국은 패망한 일제를 재무장시켜 아시아침략의 돌격대로 내세웠고 미국의 비호와 후원속에 되살아난 일본은 제정의 《뽀든노》를 갖고 또 갈며 호시탐탐 그 기회만 노리고 있다. 지금 일본이 떠들어대는 《미일방위협력

지침》개정문제만 보아도 그러하다. 미국이 일본을 대륙침략의 전초기지, 병참기지로 만들고 《동맹》의 사슬에 더 얽매어놓는 대가로 일본을 《전쟁가능한 보통국가》로 만들어주는 것이 《미일방위협력지침》이라고 할 수 있다. 2차에나 개정된 《미일방위협력지침》으로 일본은 유사시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전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미국의 모든 군사작전과 훈련에 《협력》의 명분으로 참가할 수 있게 되었다. 그것도 모자라 일본은 《집단적자위권》을 임의로 행사하기 위해 《미일방위협력지침》개정의 목소리를 높이고 미국은 이를 적극 부추기면서 저들의 침략야망 실현에 일본을 더 깊숙이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다. 한세기 세기 이전의 《타프트-가쓰라협정》이 세기가 바뀌어 20여년이 흘려진 지금도 그 바탕을 이어가는 셈이다. 무엇을 인정하는 대신 무엇이 협력한다는. 분명함은 조선에 대한 그들의 침략야욕은 한세기이전이나 지금이나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으며 그 수법은 더욱 악랄하고 교활해졌다는 점이다. 최근 정치군사적으로 더욱 얽혀들어가는 미국과 일본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정 필

전쟁반대, 평화수호는 남북민심의 강력한 요구

남조선에서 도발적인 합동군사연습을 반대하는 각계층의 투쟁이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남조선언론 《민플러스》, 《오마이뉴스》는 《광복 76주년 8.15대회 서울추진위원회》(8.15서울추진위)가 합동군사연습중단을 촉구하는 1인기자회견을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서울주재 미국 대사관앞에서 진행한데 대해 보도하였다. 《8.15서울추진위원회》 대표자들은 폭우가 쏟아지고 뜨거운 삼복더위가 계속되는 속에서도 《한미군사훈련중단》의 목소리를 높이며서 조선반도는 언제 다시 대결의 시대로 돌아갈지 모를 위험천만한 상황에 놓여있다. 미국은 《한미군사동맹》을 멈추고 《한미연합군사훈련중단》으로 대화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계속하여 그들은 《미국방부는 한미연합군사연습이 방어적성격이고 국제적으로 진행되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히지만 연습의 성격은 전혀 그렇지 않다. 한미연합군사

연습은 북을 적으로 규정하고 선제공격, 평양진격작전, 참수작전 등을 펼치는 전쟁연습일뿐이다. 구태의연한 상호 적대정책에 기초한 한미연합훈련은 우리의 안보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쟁과 대결을 조장하고 위협천만한 전쟁위기를 불러오는 한반도안보의 재앙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쟁연습과 대화, 적대 협력의 절대로 광범될 수 없다는 것은 지난 역사속에서 충분히 증명되었다. 우리 민족의 평화와 안전, 번영은 과거 냉전시대의 낡은 틀과 관행에서 벗어나야 비로소 온전히 실현될 수 있다.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고 남북이 신뢰에 기초해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면 우리 민족의 앞에는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길이 활짝 열릴 것이다. 더 늦기 전에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중단을 선언하고 남북공동선언리행에 나서자.》라고 하면서 《한미동맹의 편에 설 것이 아니라 당당한 자주외교와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조진반도 평화, 번영의 미래를 개척해나갈 것을 호소하였다.》라고 하였다. 《8.15서울추진위원회》는

이후에도 다양한 활동과 실천을 계획하고 서울시민과 함께 행동해나갈 예정이라고 한다. 27일에는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경남본부가 경상남도청 정문앞에서 전쟁연습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데 대해 언론들이 전하였다. 한편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자주통일평화변영운동원등 단체를 비롯한 통일운동단체들은 국제단체들과 함께 7월 16일과 20일 서울주재 미국대사관, 남조선주둔 미군사령부, 청와대에 《유엔기》사용을 중지하는 공개요구서를 보내는 등 남조선미국합동군사연습을 반대하는 국제적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활

들은 전쟁을 예고하는 합동군사연습중단을 요구하는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보다 앞서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는 6월부터 해외청년들을 대상으로 《조국의 통일을 바라는 남, 해외청년학생공동토론회》를, 통일운동단체들은 국제단체들과 함께 7월 16일과 20일 서울주재 미국대사관, 남조선주둔 미군사령부, 청와대에 《유엔기》사용을 중지하는 공개요구서를 보내는 등 남조선미국합동군사연습을 반대하는 국제적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활

동도 지속적으로 벌려나가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가운데 광주, 대구, 부산, 경기를 비롯한 남조선의 각 지역에서도 경기주권련대, 광주전남주권련대, 미군철수부산공동행동을 비롯한 지역단체들이 미국령사관포위작전, 1인시위, 항의행동, 평화행진 등을 진행하였다. 이에 대하여 남조선의 언론, 전문가들은 남조선미국합동군사연습이 다가올수록 연습중단을 요구하는 시위투쟁열기가 남조선 전 지역의 곳곳에서 더욱 고조될 것이라고 예평하였다. 본사기자 김 광 혁



정치시정배들에게 차례질 것은...

한이복속에서 탄생을 꾸는 것을 가리켜 동상인이라고 한다. 《통합》이라는 《이복》속

에 함께 뒹굴던 《국민의 힘》과 《국민의 당》, 그들은 저마끔 어떤 꿈을 꾸고 있었는가.

합당후 기구구성문제- 한 쪽은 공동의명, 다른쪽은 선로 출방법이다.

고 들어오라는 것과 같다. 정말 굴욕적인 일이다. 한마디로 두 손두발 들고 들어오라는 것이 그들의 합당요구이다 라고 비난하였다.

보는 격이라고 해야 할지 두 권력야심자들이 더러운 손으로 서로를 꾸짖는 꼴이라 할 것이다. 누구의 탓이라고 할 것도 없는데.

과연 자존심문제일까?

두 보수야당의 합당이 《당 대 당》인가, 일방에 의한 일방의 흡수통합인가 하는데 대해 그들자체가 많은 신경을 써왔고 그것은 그대로 항간의 비웃음거리로 되어왔다. 덩치큰 늙은 내 안에 들어와라 하고 눈아래로 내려다볼것이고 작은 늙은 손들만 한 자존심을 세워 주먹을 틀어질것이다 하는 것이었다. 이번 협상결렬의 결과도 꼭 그대르였다. 당명문제- 《국민의 당》은 변경을, 《국민의 힘》은 유지다. 《대선》 후보선출문제- 한

견은 별도의 위원회구성이고 다른견은 저들의 《경선》 준비위원회에 합류하란다. 닷, 닷, 누구 닷

당규변경, 당직자승계 등 무리한 요구를 하였다. 《국민의 힘》이 《국민의 당》을 흡수하는 소리다. 반면 《국민의 당》은 《아전대동행》을 위한 합당이 아니라 오직 《국민의 힘》의, 《국민의 힘》에 의한, 《국민의 힘》을 위한 합당요구하지 말라는 것이 《국민의 힘》의 요구사항이다. 입당

집권야욕이 전부였으니... 것처럼 권력을 두고 누가 양보를 하였다고 하겠는가. 하기에 남조선언론들과 전문가들은 《국민의 힘》과 《국민의 당》 사이의 협상결렬은 지난 6월 22일 합당과 관련한 첫 회의를 시작하면서 한달여간의 협상종료선언이라고 전하면서 그것은 《이미 예견하였던 것》이라고 했다. 그들은 새로운 갈등을 초래하는 시한탄이 될 것이다. 《국민의 힘》과 《국민의 당》을 부르지 않는 실제로는 저들의 집권야욕실현을 위해 《합당》이라는 간판아래 동상이몽하는 자들. 그들에게 남조선민심이 어떤 대답을 줄 것인가는 시간이 말해줄 것이다. 본사기자 안 권 일

《기억에 레의를 갖춰라》

- 《세월》 호 기억공간설계에 참가한 건축가의 호소 -

천막은 앉았고 고통과 성찰은 깊었다. 철거가 시작되자 천막속의 물건이 한꺼번에 밖으로 끄집어내졌다. 최소한의 세상으로 삶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을 버려온 4년 8개월의 시간과 물건, 시민들의 시간과 물건이 거친 천막속에서 치렬하게 의지하며 남아가던 평정제를 마주했다. 유족들의 치위진 자리에 새 공간을 만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설계를 위한 새 기억공간은 저 천막, 민형의 거처들에 비해 파장될 수도, 진실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라는 자각에 전율이 왔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 얼마큼 정성껏 만들어야 그것이 천막을 대신할 수 있을지 자신도 없었다. 《세월》호참사를 외면해도던 기자들이 그날따라 유난스러웠던 반면 유족들은 의

연했다. 고통을 무표정으로 짓누르던 부모들에게 견지는 천막을 보는 심정을 묻는 잔인한 취재가 반복했다. 광화문광장은 초보항쟁의 발원지였고 천막이 있던 자리는 《세월》호참사 직후 단식투쟁을 시작한 곳이다. 광장 그 자리가 유족에게 필요한 이유가 광장 한복판에 저만큼의 바닥이 필요해서였는가. 저 공간에 대한 욕심이 있었는가. 《세월》호참사가 야기한 가장 고통스러운 마음의 상처는 부모가 아이를 잃는 상사 그 자체이다. 광화문근처에만 가도 《세월》호의 비극이 처참히 환기되는데 유가족은 천막이 있던 자리의 무엇이 지켜지기를 통렬히 바랄가. 《기억과 빛》은 천막의 절반규모로 축소됐지만 시민들과 함께 리용하는 공간조성목표에 맞았고 유가족이 동의했다.

이제는 2019년 3월 6일 서울시 열린광장시민위원회에서 승인되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거쳐 3월 19일 착공, 4월 12일 개관했다. 기억공간설계, 공사에는 61명이 참여했고 각자 동원할 수 있는 기술과 마음을 모았다. 그로록 많은 목수, 봉사자들이 기억공간 이것 하나 짓고있고 이 비극이 덜한 비극이 되겠냐를 자문하며 가슴치며 자리를 지켰다. 햇살랑 비라도 고함치려던 뻔함으로 부터 24시간 교대로 공사현장을 지켜준 이들은 아마 단원고 학생들도 그랬을 것이다. 열린 기억공간은 엄숙한 추모를 강요하지 않고 시민들을 환대했다. 제도적, 사회적 약자에게 곁을 내주고 같은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뉴데감과 생명안전의 가치를 나누었다. 진실마중대에는 어린 학생의 방문이 끊기지 않

있고 노란 리본만들기도 지속했다. 기억공간이 광화문광장에 있어야 한다는 것은 초보항쟁의 발원지였다는 사실이 기억의 수준을 넘어 그때가 시민에게 인식된다는 점에서 중요하고 참사회생자를 예도 하고 추모의 일상이 실천된다는 점에서 더 중요하다. 《COVID-19》확산으로 위 고있는 기억공간이 2021년 7월 5일 철거를 통보받았다. 바다속 아들에 대한 상상을 번번이 멈추지 않고는 숨쉬 수 없었다던 아버지에 기억공간은 마지막 표적이다. 기억공간준치는 공간의 존치다 아니라 책무의 존치다. 침몰리유를 아직 모르는 당신들은 지금 무엇이 간절한가. 이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알아들으실 수 있도록 설명해라. (남조선잡지 《한겨레21》 2021년 7월 26일호에서 전제)



민생민제를 정쟁이냐냐냐

최근 남조선에서 악성 전염병의 4차대유행으로 인한 사회적혼란과 민생악화는 사람들의 불안과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련합뉴스》를 비롯한 주요 언론들은 《COVID-19》 감염자수가 하루 평균 1500여명을 넘고있으며 7월 21일에는 확진자수가 1780여명으로서 전염병발생이후 최고를 기록했다고 보도하면서 특히 전파력이 강한 0번이비루스까지 확산하고있어 앞으로 비루스확진자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악성전염병사태의 악화로 가장 큰 타격을 입고있는것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라고 전하였다. 사회적불안과 민생고가 가중되고있는 속에 남조선정치권에서는 싸움질이 그칠새 없어 민심의 환멸만 자아내고있다고 한다. 《서울신문》을 비롯한 남조선언론들은 악성전염병

민생민제를 정쟁이냐냐냐

최근 남조선에서 악성 전염병의 4차대유행으로 인한 사회적혼란과 민생악화는 사람들의 불안과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련합뉴스》를 비롯한 주요 언론들은 《COVID-19》 감염자수가 하루 평균 1500여명을 넘고있으며 7월 21일에는 확진자수가 1780여명으로서 전염병발생이후 최고를 기록했다고 보도하면서 특히 전파력이 강한 0번이비루스까지 확산하고있어 앞으로 비루스확진자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악성전염병사태의 악화로 가장 큰 타격을 입고있는것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라고 전하였다. 사회적불안과 민생고가 가중되고있는 속에 남조선정치권에서는 싸움질이 그칠새 없어 민심의 환멸만 자아내고있다고 한다. 《서울신문》을 비롯한 남조선언론들은 악성전염병

민생민제를 정쟁이냐냐냐

최근 남조선에서 악성 전염병의 4차대유행으로 인한 사회적혼란과 민생악화는 사람들의 불안과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련합뉴스》를 비롯한 주요 언론들은 《COVID-19》 감염자수가 하루 평균 1500여명을 넘고있으며 7월 21일에는 확진자수가 1780여명으로서 전염병발생이후 최고를 기록했다고 보도하면서 특히 전파력이 강한 0번이비루스까지 확산하고있어 앞으로 비루스확진자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악성전염병사태의 악화로 가장 큰 타격을 입고있는것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라고 전하였다. 사회적불안과 민생고가 가중되고있는 속에 남조선정치권에서는 싸움질이 그칠새 없어 민심의 환멸만 자아내고있다고 한다. 《서울신문》을 비롯한 남조선언론들은 악성전염병

민생민제를 정쟁이냐냐냐

최근 남조선에서 악성 전염병의 4차대유행으로 인한 사회적혼란과 민생악화는 사람들의 불안과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련합뉴스》를 비롯한 주요 언론들은 《COVID-19》 감염자수가 하루 평균 1500여명을 넘고있으며 7월 21일에는 확진자수가 1780여명으로서 전염병발생이후 최고를 기록했다고 보도하면서 특히 전파력이 강한 0번이비루스까지 확산하고있어 앞으로 비루스확진자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악성전염병사태의 악화로 가장 큰 타격을 입고있는것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라고 전하였다. 사회적불안과 민생고가 가중되고있는 속에 남조선정치권에서는 싸움질이 그칠새 없어 민심의 환멸만 자아내고있다고 한다. 《서울신문》을 비롯한 남조선언론들은 악성전염병

감찰수 없는 일본의 과거죄악

비법적이며 날강도적인 도서략탈

과거 일제의 조선문화재략탈가운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중의 하나는 역사적으로 전해져온 귀중한 민족고전들을 날강도적인 방법으로 일본으로 빼돌린것이다. 조선을 강점한 일제는 첫 시기부터 고서적들에 눈을 들이고 교활한 방법으로 약탈하여 일본으로 가져갔다. 조선을 강점한 일제는 첫 시기부터 고서적들에 눈을 들이고 교활한 방법으로 약탈하여 일본으로 가져갔다. 조선을 강점한 일제는 첫 시기부터 고서적들에 눈을 들이고 교활한 방법으로 약탈하여 일본으로 가져갔다.

일본 히로부미는 조선강점을 위해 조선에 기여들어왔던 시기에 벌써 수많은 규장각도서들을 일본으로 가져갔다. 이또 히로부미는 조선강점을 위해 조선에 기여들어왔던 시기에 벌써 수많은 규장각도서들을 일본으로 가져갔다. 이또 히로부미는 조선강점을 위해 조선에 기여들어왔던 시기에 벌써 수많은 규장각도서들을 일본으로 가져갔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일본정부의 근대부대신이었던 와다나베가 1911년 5월 당시 조선총독이었던 데라우치에게 《이또 히로부미가 한 일관계사항의 조사를 목적으로 일본에 가져온 조선의 서적들이 있는바 이또가 죽은 다음 그 책들은 근대성서료로 보관되어있을. 이는 일본왕족 및 공족의 실록편수에 참고서로 필요하며 또한 이 조선책들은 일본의 제실도서관에 없으면 불행히 아주 양도되기를 원함》이라는 조희공문을 보내었던 자료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당시 이또가 가져갔던 도서들은 정치, 역사, 인물 등에 관한 문집들과 읍지들로서 모두 33부의 563책에 달하였다. 뿐만아니라 이또는 그후 통감으로 근무하면서 규장각

에서 많은 도서들을 약탈하여 도쿄의 궁내성 서료로에 반출하였다. 소네 아라스케통감 역시 이또 못지 않게 수많은 도서들을 약탈하였다. 그가 약탈해간 도서들은 《통감부장서》 또는 《소네 아라스케현상서》으로 불리워졌는데 그 수는 무려 163부 852책에 달하였다. 일제는 규장각의 도서들을 비법적으로 약탈해가는 한편 규장각의 도서들에 《제실도서지장》이라는 장서인을 찍어 총독부상하의 관리기관에 포함시켜 숨겨두었다. 그마저 조선왕조제찬과 정부제찬의 구분이라는 명목 밑에 그것을 몽땅 넘겨받아 총독부의것으로 만들었으며 1931년에는 경성제국대학 도서관에 이관시켜 일제이용학자들이 식민지언구자료로써 묵혀 하였다. 이와 함께 조선총독부는 조선봉건정부의 4대사고본도서를 날강도적으로 차압하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통감부나 총독부를 등에 업은 일본인무법약탈자들도 헌병, 경찰을 앞세우고 우리 민족의 고전을 베풀고 강탈하는 행위를 거리낌없이 감행하였다. 교토대학 부속도서관에 소

장된 《가와이문고》를 설립하였던 가와이도 그중의 한자이다. 이자는 1908년 12월 헌병들을 거느리고 강화도 《정축산사고》에 달려들어 백주에 문을 도끼로 깨부수고 들어가 수많은 책들을 약탈하였다. 통감부통역으로 있던 마에마라키 역시 《정축산사고》본을 비롯한 수많은 문화재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량의 도서들을 빼돌려 《마에마라키》까지 만들었다. 일제는 또한 조선강점초기부터 《조선고서간행회》라는것을 만들어놓고 우리 나라의 귀중한 고문서들에 대한 전국적인 《조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전국의 경찰서와 연락을 맺고 고서적에 대한 《조사수집》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서물동회회》라는것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면서 수많은 도서들을 《수집》 약탈하였다. 일제의 야만적인 민족고전 약탈만행으로 력대로 문헌이 많이 《문헌지국》으로 불리우던 우리 나라의 문헌은커녕 문창초에 바를 종이조차 변변히 남아있지 않은 나라로 되어버리고말았다. 본사기자 주 광 일

